

영혼의 돌봄 목회 (Soul Care Ministry)

이 장에서는 영성 목회의 방식으로써 영혼의 돌봄 목회를 소개하려고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영혼의 돌봄 (Soul Care)” 목회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자기 돌봄을 실천하도록 돕는 목회를 뜻한다. 자기 돌봄이 일상 가운데 제대로 이뤄질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시켜 나가는데 있어 더 적은 방해を受け 된다. 또한 온전한 자기 돌봄은 영적 확장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더욱 실천적이고, 부요한 형태로 일어나게 한다. 결국 영혼의 돌봄은 이러한 자기 돌봄을 삶의 방식 혹은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돕기 위한 목회적 시도라 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은 우리에게 자기 돌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시기였다. 팬데믹은 모든 관계성을 단절시켰다. 친구와 이웃, 그리고 직장과 교회 등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과 교통하는 것이 배제된 시대를 살아야만 했다. 그러한 기간은 우리에게 두가지 사실들을 일깨워주었다. 하나는 자기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두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불변적 관계성 말이다. 예전의 돌봄이 누군가의 지지와 도움을 통해 이뤄졌다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자기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함을 다시금 상기시켜주었다. 한편, 그러한 단절은 우리(그리스도인들)가 근본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깨닫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바로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있는 변함없는 관계 말이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시간은 영혼의 돌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 준 기간이었다 할 것이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대중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심리학적 조언이나 라이프 코칭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은 자기 돌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와 필요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성급한 생각일까?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열광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애써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매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기 돌봄에 대한 정보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과연 간과해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 대중적 현상들은 “자기를 어떻게 돌보며 살 것인지”가 신앙인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모든 현대인들의 공통된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기 돌봄, 특별히 영혼의 돌봄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는 것은 그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넘어 분별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자기를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시도도, 어리석은 요구도 아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돌보는 것 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건한 존재가 되길 바라시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자기 돌봄의 원천과 방식, 그리고 동기가 “뜻하신 바대로” 혹은 “의도하신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신앙인의 경우에 그러한 온전성을 다루는 것은 영적 성장 뿐만 아니라 자기와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섬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 “닳을 잃은 세대 (generation without anchor)” 그리고 “자유의 역설 (the paradox of freedom)”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길이요, 생명이요,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보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탈집단주의 혹은 탈가족주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절실한 요구가 아닐까 한다.

무엇보다도,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 돌봄이 자기 만족이나 중심적인 성향을 강화하는 행위라기 보다 자기 확장성과 주체성을 유지 혹은 성장시키기 위한 실천적 선택이라고 할 때, 영혼의 돌봄 목회는 영성 목회를 대중적인 영역으로 옮기기 위한 장을 열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 장에서는 영혼의 돌봄 목회 (Soul Care Ministry)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영혼의 돌봄 목회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마도 영혼의 돌봄이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이미 영혼의 돌봄 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개인들과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실 영혼의 돌봄 목회는 하나님 사람들의 역사 안에 원래 그렇게 있는 것이다. 개인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회복과 갱신 그리고 위로와 쉼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미 그러한 목회의 한부분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그러한 이유는, 영혼의 돌봄 목회가 왜 중요한 것인지, 영성 목회 방식에 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자기 돌봄을 추구하는 자들의 DNA(혹은 지문)와도 같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자기 돌봄을 추구하는 자들의 DNA(혹은 지문)와도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영혼의 돌봄 목회의 기초에 대해, 그리고 영혼의 돌봄 목회를 가능하게 할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자.

“영혼 (Soul)”의 개념 이해

“영혼 (Soul)”이란 무엇일까? 기독교 영성의 관점에서 영혼을 살펴보는 것은 영혼의 돌봄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혼이란 인간 존재의 영적인 부분으로 소개되곤 한다. 그러나 영성 신학의 관점에서 영혼은 더 복잡하고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인간의 숨겨진, 영적 측면인 동시에,

몸(body)과 정신(mind)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는 장소이다. 육체와 정신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듯, 영혼도 긴밀히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한편, 육체와 정신의 실체(substance)가 완전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해석되어야 하듯, 영혼 또한 실체가 보여지진 않지만, 내적 의미와 성질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진다. 영성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영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의 내적 물줄기와도 같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들이 힘과 방향과 조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한 물줄기가 본시 되어져야만 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 그자체가 하나님의 광대함과 그의 나라 그리고 창조 세계에 뿌리박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이 생기를 얻고 그러한 물줄기를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끊임없이 회복하고 부유하게 된다.¹

“영적 (spiritual)”이라는 말은 흔히 영적인 것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기 쉽다. 특히 “성령의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러한 이원론적 접근을 정당화시키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을 허락하셨듯이, 몸과 정신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에 임재하시듯,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인간은 통전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돌보시며, 관계성을 맺고 계신다. 그러나 한편, 주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통전적인 존재라고 해서, “영혼 = 몸 = 정신”의 원리에 기반해서 세가지 기관들 혹은 요소들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영혼”의 영역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영혼(soul)”이라고 할 때, 육체, 정신, 심지어 사회적 관계와 다른 점은 영혼의 영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깊고, 직접적인 장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영혼은 결코 동떨어진, 고립된 개념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신체와 감정, 의식, 심지어 무의식을 관통하는 가장 깊은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급진적인 변형의 장소일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장 직접적으로 자리잡는 지점이다. 물론 성령은 우리의 몸과 감정, 그리고 정신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지만, 영혼의 영역은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요, 완성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우리가 회심을 체험했다고 했을 때, 새사람이 되어간다고 할 때, 그것은 몸과 정신이라기 보다, 영혼에게 일어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영혼이 하나님을

¹ Willard, Dallas. 2012. *Renovation of the Heart: Putting On the Character of Christ*. The Navigators. 204.

발견하고 그의 의도와 체질적으로 일치되는 상태에 있을 때, 몸과 정신, 감정과 행동 모든 것에 급진적이고 장기적인 변형을 갖게 된다.

외형이나 외모의 일부분을 바꿨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삶에 일시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과연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지식의 축적이나 교양 생활이 정신적인 건강과 부요함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지식이, 교양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형을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의 이탈과 범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로 마음의 안정과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이동” 혹은 “왜곡된 자아”에서 “과거 즉 왜곡되기 전 자아”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지 모른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동이 새사람으로의 전환이나 성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간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가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과 교양을 주셨기 때문일까? 우리의 외형을 변화시키기 때문일까? 바로 영혼 안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이다. 기독교 영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급진적이고 참된 변형은 오직 성령이 머무시는 영혼의 영역으로 부터 발생한다. 영혼이 성령이 바라시는 상태, 그리스도의 영과 일치하는 상태가 이뤄질 때, 우리의 무의식, 정신, 감정, 심지어 육체, 모든 삶의 영역에 변화와 갱신이 이뤄진다.²

흥미로운 사실은 영혼의 영역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 동시에, 뿌리깊은 죄와 어둠이 자리잡는 곳이라는 점이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24-26). 성령과 죄, 두가지가 병립할 수 없는 개념의 것들인 것 같지만, 영혼은 두가지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 심지어 무의식이 죄와 어둠을 감지하지 못할 때에도 죽음과 파괴를 가져올 죄와 어둠 때문에 성령은 탄식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30) 영혼이 진정한 갱신의 장소인 동시에, 퇴보와 정체성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

영혼이 육체나 정신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또하나의 차이점은 영혼의 영역은 말그대로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장소라는 점이다. 육체도 쇠하고, 정신도 쇠하고, 감정도 무뎠지는 것은 인생의 날수가 늘어남과 따라 일어나게 되는 모든

² Willard, *Renovation of the Heart*. 70-80. .

유한한 창조물의 운명과도 같다. 즉 영혼 이외의 영역에 있어 시간의 개념이란 오직 과거와 현재 밖에 없다. 장래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을 살아간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더 나아가 미래가 하나로 맺어져 있는 장소이다. 잊어진 것 같은 과거도, 주어진 지금도, 심지어 아직 오직 않은 미래도 영혼 속에 기억되어지고, 기록 되어지기 위해 변함없는 기제로 남는다. 이러한 측면은 영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뿐만 아니라 영혼의 돌봄 목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시사해준다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만약 우리가 영원하고 온전한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지할 기제 혹은 영역이 없다면 어떻게 유한하고,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 기대와 달린 왜곡된 인간이 하늘의 영원한 것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선물이 인간의 중심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영혼의 돌봄 (Soul Care)”이란?

그렇다면,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간단하게 말해서, 영혼의 돌봄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자기를 돌보는 습관적인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을 뜻한다. 사실 영혼의 돌봄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단지 오늘날 교회가 상실한 잊어버렸던 유산에 가깝다. 특별히 신약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표현되고 강조되었던 실천이었다.³ 그러한 맥락 속에서, 베트시 바버와 크리스 베이커는 “영혼의 돌봄”을 본시 우리를 향해 있던 어떤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들은 영혼의 돌봄을 참자아가 되어가는 내적 돌봄이자 여정으로써 회복되어야 할 영적 전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혼의 돌봄에 대한 부르심은 곧 오래된 부르심이다. 기독교 교회의 초창기부터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전통적 목회적 돌봄의 확립된 형태로 존재했으며 당면한 시대가 필요로 할 때마다 더욱 활발히 이뤄졌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선조적 유산에 대한 갱신을 요청하는 동시에 현대적 연구들과 우리의 독특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영혼의 돌봄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⁴

이제 구체적으로, 영혼의 돌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위에서도 언급한 바, 영혼의 돌봄이 다양한 목회적 전통과 회중의 기대들 그리고 심리치료 연구들과

³ Houston, James M. "Seeking Historical Perspectives for Spiritual Direction and Soul Care Today." *Journal of Spiritual Formation and Soul Care* 1 no. 1, (2008): 96.

⁴ Barber, Betsy, and Chris Baker. "Soul Care and Spiritual Formation: An Old Call In Need of New Voices." *Journal of Spiritual Formation and Soul Care*, 7 no. 2, (2014): 272.

간밀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어떤 특정 전통이나 실천법, 더 나아가 치료의 대상으로 다뤄질 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돌봄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자기를 돌보는 습관적인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 **(to raise or facilitate a habitual spirituality for the self-care in the presence of God to love God and love the others well or better)**”

영혼의 돌봄을 이해할 때, 크게 세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것의 이유, 둘째는 그것의 성질, 그리고 세번째는 그것의 통로와 방식이다. 만약 이 세가지를 간과했을 때, 영혼의 돌봄은 변화와 확장성의 경험이 아닌, 또다른 헤도니즘 (쾌락주의)의 형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기 만족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고상한 시도 말이다. 그러나 영혼의 돌봄은 자기 안위와 과시 그리고 현실 도피를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능력을 더욱 깊고, 넓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자기 돌봄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 이루는 방식에 가깝다. 쉽게 말해서, 영혼을 돌본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그것이 영혼의 돌봄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또한 최종적인 이유인 것이다 .

한편, 영혼의 돌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영혼을 돌보는 이유가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랑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자기 돌봄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성되는 **(cultivated)** 자연스러운 어떤 것이지 “해야만 하는 **(ought to be)**” 의무가 아닌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혼의 돌봄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혼을 돌본다고 할 때, 그것의 기초 혹은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다.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자기를 돌봄으로써 어떤 치유와 갱신과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동시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절정이신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이미지(형상)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항성을 갖게 한다. 더불어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역량(**capacity**)를 가져온다.⁵

영혼의 돌봄이 심리치료나 상담에서의 “자기 돌봄”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크리스틴 푸파의 말을 들어보자.

⁵ Johnson, Eric L. 2017. *God And Soul Care: The Therapeutic Resources of the Christian Faith*. IVP ACADEMIC. 417-424.

영혼의 돌봄의 중심에는 자기 돌봄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기초한다. 자기 돌봄에 대한 각 사람의 이해는 그들 자신의 믿음 체계와 실천 사항들에 기반한다... 영혼의 돌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열정 속에서 그것이 행해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

푸파는 영혼의 돌봄이 자기 돌봄의 형태인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즉 영혼의 돌봄 가운데 이뤄지는 돌봄은 단지 자기의 회복만이 아니라 사랑의 확장성을 가져온다는 말이다.

한편,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영혼의 돌봄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것의 방식인데, 크리스틴 푸파는 영혼의 돌봄은 지속적인 열정, 즉 습관적인 영성을 가질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습관적인 영성 (**habitual spirituality**)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영혼의 돌봄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즉흥적인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영적 돌봄의 방식을 개인이 장기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s**)”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에서 목적이 어떤 방향성을 준다고 할 때, 시스템은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진행시키도록 만든다고 말하면서, 결국 어떤 (크고, 작은) 습관이야말로 이 두가지 - 목적과 시스템 혹은 방향과 진행 - 을 개인의 삶에 가져오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개인의 삶이 지대한 진화를 이루도록 만든다고 말한다.⁷

모든 큰 일들은 작은 것들로부터 생겨난다. 모든 습관의 씨앗은 사실 아주 작은 결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이 반복될 때, 습관은 점점 자라나 더 강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뿌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스스로 더 단단히 자리잡고, 가지들이 성장하는 것 같이 말이다.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독초를 뿌리뽑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반면, 좋은 습관을 세워가는 것은 하루에 한번씩 아름다운 꽃을 심어나가는 것과 같다.⁸

⁶ Poopa, Kristen. "Self-Care Is Soul Care." *Journal of Spiritual Formation and Soul Care* Vol.12(1), (2019): 50-70.

⁷ Clear, James. 2018. *Atomic Habits: An Easy & Proven Way to Build Good Habits & Break Bad Ones*. Avery. 27.

⁸ Clear,. *Atomic Habits*. 22.

영적 돌봄은 특정한 실천 사항들에 대한 습관을 가짐으로써 과거에는 자리잡지 않았던 좋은 습관을 통해 개인의 삶 속에 새로운 목적을 갖고, 자기 돌봄의 시스템을 키워나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영적 돌봄은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실천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적 영성 (**habitual spirituality**)의 형태로 자기 돌봄을 창조해가는 작업에 가깝다.

지금까지 영혼의 돌봄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로운 영성 목회의 접근으로써 영혼의 돌봄 목회란 무엇일까? 영혼의 돌봄은 개인의 실천 사항인 동시에, 목회의 대상이다. 즉 영적 성장과 훈련을 위한 다양한 목회 방식들이 존재하는 바, 영혼의 돌봄 또한 목회의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이 자기 돌봄을 통해 확장성과 저항력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일은 개인만의 프로젝트(혹은 과제)라기 보단 목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돌봄 목회란?

목회적 방식으로써 영혼의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 몇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영혼의 돌봄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두번째는 영혼의 돌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전통들을 살펴보는 것, 마지막으로 영혼의 돌봄과 비슷한 개념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영혼의 돌봄 목회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밝혀줄 것이다.

먼저, 영혼의 돌봄은 어떠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일까? 영혼의 돌봄이 “자기 돌봄과 자기 실행”의 형태 속에 이뤄진다고 할 때, 그러한 경험은 주관적인 판단과 체험에 국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영혼의 돌봄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주관적인 것이라고 해서, 명확한 사건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영혼을 돌본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내면과 삶에 어떤 현상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영혼의 돌봄을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가 중 한명으로 언급되는 헨리 나우웬의 고백은 영적 돌봄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영적 업무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말들이 외면당할 때에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의 행동들이 비판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쓸모없다고 취급을 받을때에도 행동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하시며, 심지어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사랑하는데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존재의 계시들이 부족할 때에도 나의 감사가 언제나 가능하게 하신다. 그러한 자유의 역설 속에서 나는 오히려 무제한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⁹

영혼의 돌봄 목회는 방금전 헨리 나우웬이 터득한 고백이 개인의 삶에 가능하도록 돕는 목회라 할 것이다. 그것은 각 개인이 자기 돌봄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마음껏 거함으로 우리의 중심이 모든 것으로 부터 자유롭게 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저항하는 동시에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목회를 뜻한다. 또한 그러한 존재만이 가질수 있는 기쁨으로 인해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돕는 목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혼의 돌봄은 개인의 과제를 넘어 목회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목회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삶을 위해 전략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라 할 때, 영혼의 돌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그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한 목회의 필수적 대상이라 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영혼의 돌봄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통한 존재의 형성과 재형성에 주목하는 영성 목회 (Spiritual Formation Ministry)의 본질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실제로 영혼의 돌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영혼의 돌봄에 대한 목회적 요청은 더욱 분명해진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Soul)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Soul)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3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⁹ Nouwen, Henri J. M. 1992. *Life of the Beloved: Spiritual Living in a Secular World*. Crossroad. 70.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2)

지금 내 마음(Soul)이 심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요한 12:27)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리이다. (누가복음
1:46-47)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5-6)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관계성은 영혼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시사해 준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떤 이들은 영혼의 돌봄 목회의 기원을 18세기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 등장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시애틀 퍼시픽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학자들은 목회 실천의 예로써 18세기 존과 찰스 웨슬리가 시작한 영적
운동을 영혼의 돌봄 목회의 본격적인 계기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존과 찰스 웨슬리에 의해 18세기 무렵에 시작된 다양한 모임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과 의도 속에서 모임을 갖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모임들은 어떻게 그들의 영혼이 부요하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격려했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이 스스로 안식을 얻고,
확신하고, 더 나아가 권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있건, 예를 들면, 새로운 신앙, 성숙한 신앙, 배워가는 신앙의 단계인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모임들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그들에게
마련해주었다.¹⁰

한편, 어떤 학자들의 경우, 현대적 영혼의 돌봄의 목회가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별히 콘코디아
신학교에 있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마틴 루터가
가르치는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원 사이의 관계성”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돌보는

10

<https://spu.edu/academics/school-of-theology/undergraduate-programs/university-foundations/UFDN-100/0/soulcare>

길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연구한 리차드 마르스 (Richard Marris)와 레인하드 슬렌츠카 (Reinhard Slenczka)와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주소 학술논문을 참조해주길 바란다)¹¹

그러나 사실 영혼의 돌봄은 특정한 실천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자기 발견, 치유 그리고 변형을 간구한 모든 이들에게 이미 이뤄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특정한 인물이나 운동이 아닌 영적 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영혼의 돌봄 목회의 한부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기 시작한 것이 영혼의 돌봄 목회의 시작점이다. 따라서 초대 교회부터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3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시편들과 예언서 저자들의 고백들 모두, 영혼의 돌봄을 체험하고 이를 목회의 방식으로 실천한 예들에 속한다. 교회 역사에서는 히포의 어거스틴, 사막 교부들, 현대에 와서는 C.S 루이스나 헨리 나우웬 같은 인물들이 영혼의 돌봄 목회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인물들에 속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가지 사실들 속에서 영혼의 돌봄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들을 채울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영혼의 돌봄은 일종의 저항을 필수적으로 요한다는 것 말이다. 한편, 이들은 인간의 영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돌봄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돌봄을 통해 기쁨, 평안, 인내, 온전한 시선, 그리고 의도에 있어 변화를 얻게 되는 점과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확장성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이들은 영혼의 돌봄을 목회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길 원했다. 즉 영적인 자기 돌봄을 단순히 내면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되, 외면적으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치리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지지하는 목회적 과제로 삼은 것이다.

한편, 세가지 유사한 목회 개념들을 살펴보는 것은 영혼의 돌봄 목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회 상담 (pastoral counseling), 영적 지도 (spiritual direction), 그리고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말이다. 먼저, 이 세가지 목회 방식들과 영혼의 돌봄 사이에는 두가지 공통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네가지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한다는 것과 돌봄과 확장성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즉 네가지 목회 방식들 모두, 역사 혹은 사건의 주체를 성령으로 인정한다. 치유던, 회복이던, 깨달음이던, 회심이던, 심지어 장기적인 침묵이던 목회가 가져온 결과와 상관없이, 네가지 목회들의 공통된

¹¹ <http://www.ctsfw.net/media/pdfs/slenczkalutherscare.pdf>

주체는 “지금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또한 네가지 목회들 모두 (개인과 공동체 영역에서) 어떤 돌봄과 확장성을 갖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 만족에 대한 집착을 강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유와 치유의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공동체적 반응들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보다 부요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한편, 네가지 목회는 서로 차이점들을 갖는다. 그러한 다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다른 목회의 의도와 방식에 기인한다. 먼저 오방식 교수가 설명하는 목회 상담과 영적 지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¹²

목회상담은 참된 목자인 목회상담자가 신학을 배경으로 신앙과 은혜를 간직하면서 상처받은 인간들을 치료하는 것인데,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아를 통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영적지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에 있다. 영적지도에서 피지도자는 파괴된 삶의 부분 또는 관계의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을 지라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깊게 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목회상담의 경우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지향적인 형태로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목회적 시도라 말할 수 있다. 반면, 영적지도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위기의 극복보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증강시키고 그와 관계성을 분별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하겠다.

정신분석의 본격적인 태동과 그 맥락을 같이해 온 목회 상담이 일대일, 내담자와 상담자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설교, 소그룹 모임, 음악, 신유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실천되는 반면, 영적 지도는 목회 상담의 역사보다 훨씬 유구한 어떤 실천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것은 초대 교회 이후로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활동 속에 심겨진 암묵적 활동에 속한다. 특히 영적 지도는, 목회 상담과는 다르게,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소그룹 모임 형태로 영적 분별이나 지도 모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편, 영성 형성 프로그램의 경우는 어떨까?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의 바른 관계성을 배우고

¹²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inyouwithyou&logNo=10048067361>, page 7.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 (Christ-likeness) 으로써 행동하고 반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즉 영성 형성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에 자신을 허락함으로써 계속해서 빛어지는 것이다.¹³

영성 형성은 크게 세가지 수단들을 통해 이뤄진다: 성령, 영적 실천 원리들, 그리고 사람들. 먼저, 영성 형성은 말 그대로 인격이 있으신 성령을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과 공동체를 성령이 빛어가신다는 신뢰에 기초한다. 한편, 영성 형성은 영적 수련법들 혹은 은혜의 수단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20세기 가장 대중적인 영성 신학자들 중에 한명인 리차드 포스터는 자신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에서 영적 훈련을 위한 실천 사항들을 세가지 범주들 속에서 설명한다. 하나는 내면적 훈련: 묵상, 기도, 금식, 학습, 두번째는 외적 훈련: 단순함, 홀로 있기, 순복, 그리고 섬김,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훈련: 고백, 예배, 지도, 축하. 물론 세가지 범주들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동의 가능성,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어지는 것을 위해 사용된다.

영성 형성에 있어 마지막으로 필요로 되는 부분은 바로 사람들 (people) 이다. 레전트 대학 (Regent University)에서 가르치는 윌슨 테오는 그러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영성 형성을 위한 세번째 요소는 바로 사람들이다. 즉 그러한 형성 과정에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때 영성 형성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 . 바로 서로 서로를 신실하게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시현하려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부요하게 한다. 영성 형성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중심 속에서 진정한 변형을 경험하기 원할 때, 더 분명하게 성취될 수 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갈망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영적 실천 원리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필요한지, 특히 변형(trafomation)의 과정을 강화하고 실제화하는데 있어 신앙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하도록 유도한다.¹⁴

이상 영적 돌봄과 유사한 목회적 개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세가지 범주들 모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체계와 유산을 가지고 있기에, 위의 비교들이 세가지 목회들을 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여기지 않길 바란다.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요하고 넓은 영역이다. 그럼에도

¹³ Teo, Wilson . "Christian Spiritual Formation." *Emerging Leadership Journeys* 10, no. 1 (2016): 142.

¹⁴ Teo, "Christian Spiritual Formation.": 144.

불구하고,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목회 상담은 현대 정신, 심리학 연구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목회자와 신앙 공동체의 개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저항하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 기반한 목회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 지도의 경우, 특정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극대화하고 자신 안에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역량을 넓히기 하기 위한 시도에 가깝다. 영성 형성은 어떨까? 그것은 말그대로, 존재의 변형과 성숙에 초점을 맞춘다. 영적 원리들을 함께 실천하는 가운데, 변화와 갱신을 체험하도록 돕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혼의 돌봄 (Soul Care) 목회는 위의 세가지 목회적 방식들과 어떤 차이점을 갖는 것일까? 네가지 모두 돌봄과 확장의 장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즉 목회 상담, 영적 지도, 그리고 영성 형성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돌봄 (Soul Care) 또한 돌봄과 확장을 경험한다. 그것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토대 혹은 원천 또한 다른 위에서 언급한 목회적 방식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성령님에게 있다. 그러하기에 영혼의 돌봄에서도 목회 상담에서 일어나는 심리학적 이해와 문제 해결들, 영적 지도에서의 분별, 영성 형성에서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영적 실천의 원리들이 영혼의 돌봄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최근 몇년 동안 영혼의 돌봄에 대한 책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면 이러한 영혼의 돌봄 목회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목회적 방식들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연결점들은 아직 영혼의 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명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각자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방식 속에서 “영혼의 돌봄”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고 인용하는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오늘날 영혼의 돌봄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와 접근법들을 양산해가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비드 G. 베너와 같은 사람은 기독교 상담의 입장에서, 토마스 무어는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존 패턴은 목회 신학의 방식 속에서 영혼의 돌봄을 해석한다. 사실 이들 모두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영혼의 돌봄에 상담의 기법, 심리적 이해, 신앙 생활에 대한 안내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혼의 돌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생각의 근본적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영혼의 돌봄은 몇가지 점에서 다른 유사한 목회 방식들과 차이점을 갖기 때문이다. 먼저, 영혼의 돌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돌보는 체계라는 점에서 상담자나 특정한 리더들에 의존하는 위의 세가지 목회들과 차별된 고유성을 갖는다. 또한 목회가 이뤄지는 장소에 있어, 목회 상담이 내담자 혹은 내담자들과의 만남, 영적 지도가 분별을 위한 일대일의 특정한 장소, 영성 형성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위해 소그룹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적합한 곳을 필요로 하는 반면, 영혼의 돌봄은 주로 홀로 있기와 침묵을 가질 수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위의 세가지 목회들의 경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바탕으로 그것의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회 상담은 “위기 극복”, 영적 지도는 “분별”, 영성 형성은 “영적 원리를 배우고 이를 통한 경험을 나눔”과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영혼의 돌봄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위한 작업이라기 보단 삶의 패턴과 질에 도움이 되는 습관적 영성을 일상 생활 가운데 만들어 감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존재로, 관계성으로, 생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시도에 가깝다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영혼의 돌봄 목회는 자기 돌봄의 목회에 속한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목표의 성취라기 보다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빛어가는 동시에, 자기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고, 확인하며, 돌보고, 확장시켜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일상적인 시도에 가깝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얽매이던 것들로 부터 자유로와지는 것에 익숙해 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제들을 잘 감당하되 이에 전보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체험하는 가운데 중심이 부요하게 되어, 삶의 결정을 만들되, 사소한 것들로 부터 혹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돕는 자기 돌봄의 목회라 칭할 수 있다. 영혼의 돌봄이 주는 유익들은 분명 내적, 외적 변화와 치유를 가져오는 동시에, 이 땅 안에서 하늘의 쉼을 얻는 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세상을 더 뜨겁게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영혼의 돌봄 목회 방식들

지금까지 영혼의 돌봄 목회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혼의 돌봄은 목회의 한 부류이다. 그것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목회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영혼의 돌봄 목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일까? 이를 세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원천 (resource), 필요 (need), 그리고 전략 (strategy).

- 원천 (Resource): 그리스도

이에 대해 위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돌봄 목회의 원천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를 간과할 때, 영혼의 돌봄이 다른 부류의 것들로 왜곡되어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상, 원천을 이해하면, 영혼의 돌봄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익을 준다. 우리가 자기 돌봄의 목회를 스스로에게 적용시킨다고 할 때, 이는 두가지를 전제로 하는데, 하나는 자기 중심의 비움,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의 이동이다. 영혼의 돌봄이 영성 목회의 한 부분에 속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기독교 영성 (Christian Spirituality)의 본질적인 두가지 성질들 - 비움(emptiness)과 이동(movement) - 을 영혼의 돌봄도 본질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무엇을 향해 자신의 영혼이 향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돌봄은 자기 돌봄(self-care)인 동시에 자기 돌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던져버리기 위한 의지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돌봄이 자신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건이라고 할 때, 영혼의 돌봄은 자기의 비움과 이동을 요한다. 나의 전인(wholeness)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나 자신의 상태, 심지어 필요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요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 특히 모든 회복과 갱신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돌봄 목회는 사실상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초대 교회의 교부요, 기독교 영성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히포의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남긴 글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 안에서라야 참된 평안을 누릴수 있다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finds rest in God)”¹⁵

아론 페리 (Aaron Perry)는 “자기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터 영혼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From Providing Self-Care to Receiving Soul Care)”라는 기고문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기 돌봄의 역설을 설명한다.

자기를 돌보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것은 일종의 경쟁, 제로섬 게임, 혹은 관심과 애정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만약

¹⁵ Saint Augustine. 2008. *The Confessions (Oxford World's Classics)*. Translated by Chadwick, Henry. Oxford. I.1.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적을 물리치기 위한 시도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돌보고자 했던 사람을 다음날 나 스스로 적으로 취급하게 되는 일이 어처구니 없게도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곤 하는가? 그러나 참된 영혼의 돌봄에 대한 접근은 나의 가식적인 태도를 바꿔놓았다. 어떤 것을 나 자신에게 제공하기 위한 돌봄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도로써 돌봄이 되었을 때, 영혼의 돌봄은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제공받는 어떤 기회가 되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려고 시도했을 때는 오히려 나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가 종종 일어났던 반면, 나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나를 진실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돌봄을 받으려고 했을 때, 훨씬 더 놀라운 돌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¹⁶

영혼의 돌봄 목회에 있어 돌봄의 원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돌봄의 방식인 반면, 영혼의 돌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보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어떤 전략과 기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은 그저 돌봄의 원천을 향해 나의 가장 깊은 자아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영혼의 돌봄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된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영혼의 돌봄 목회의 시작점이다.

- 필요 (Need)

영혼의 돌봄 목회의 가능성이 그리스도와 그의 영에게 있다면, 이제 목회적 입장에서 영혼의 돌봄의 기능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영혼의 돌봄 목회에 참여해야만 할까? 즉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길래 우리의 영혼이 돌봄과 확장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적, 영적 영감을 주는 인물들 중 한명으로 거두되는 존 오르트베르그 (John Ortberg)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의 영혼은 “머무는 것(aboding)과 부요해지는 것(abounding)” 사이에서 적절한 외출타기를 하는데 유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고, 부요한 상태를 소화해 내는데도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¹⁷

¹⁶ <https://www.ministrymatters.com/lead/entry/11170/from-providing-self-care-to-receiving-soul-care>

¹⁷ <https://www.christianitytoday.com/pastors/2003/june-online-only/cln30610.html>

오르트베르그는 이러한 결핍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스스로 영혼의 돌봄 목회의 실천 혹은 지지를 받아야 하는지 5가지 구체적인 이유들을 언급한다.¹⁸

-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여지게 만들 필요가 있다.
- 우리는 리듬을 필요로 한다.
- 우리는 우리의 휴식을 위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 안과 밖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훈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돌봄 목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영혼의 돌봄 목회는 그 어떤 것보다 위의 다섯가지 필요들과 관련된 역량들을 하나님 안에서 일상 생활 가운데 키워갈 수 있는 토양과 자양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삶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루, 일주일, 혹은 몇년 동안 실천할 내용들과 계획들을 세우곤 한다. 그러나 생활 목록 (list)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는가? 영혼의 돌봄은 그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또한 영혼의 돌봄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중심을 내어드리도록 함으로써 삶의 순간이 성스러운 선물들이 되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영혼의 돌봄은 우리의 육체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일관적이며 생동감 있는 패턴을 유지하는데 유익을 준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혼의 돌봄을 실천하는 가운데, 참된 휴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삶의 계획 가운데 그러한 쉼의 지혜를 포함시키도록 격려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돌봄은 일상에 있는 수많은 과제들과 내적, 외면 목소리들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나타내주도록 한다.

민디 칼리과이어 (Mindy Caliguire)는 하나님의 테이블에 우리 자신을 자리 잡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그녀의 책 “영혼의 돌봄을 회복하기 (Discovering Soul Care)”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녀의 견해는 영혼의 돌봄 목회의 필요성을 또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해준다 하겠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비추게 될 때, 우리는 6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¹⁹

¹⁸ Ortberg, John, and Mindy Caliguire. "Soul Care For Yourself and Your Group: Principles and Practices to Care for Your Soul and Your Group Members' Souls." Christianity Today: SmallGroups.Com, 4.

¹⁹ Caliguire, Mindy. 2007. *Discovering Soul Care*. IVP Connection. 7-12.

- 인간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 만물의 존재 이유와 본질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
- 참된 자기 깨달음과 긍휼의 마음
- 개인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연결점으로써 바라보게 되는 지혜
- 자유와 용서

한편, 한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혼의 돌봄을 실천한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가 없는 존재가 된다거나 완벽한 영구적 만족에 이를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영혼의 돌봄의 그러한 갈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일시적인 현상을 일으킬수는 있어도, 그러한 기대는 영혼의 돌봄 목회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필요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돌봄과 확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요와 갱신의 원인을 가져온다.

● 전략 (Strategy)

그렇다면, 영혼의 돌봄 목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몇가지 단계들은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 영혼의 돌봄 목회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먼저, 영혼의 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초대하는 것.

두번째 단계는, 영혼의 돌봄에 관하여 배우기 위한 세미나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

세번째 단계는, 소그룹으로 영혼의 돌봄의 원리들을 실천하고 나눌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네번째 단계는, 단기 기도 리트릿을 통해 이를 깊이 체험하는 것

다섯번째 단계는, 영혼의 돌봄을 위한 습관적 실천 일정을 짜보는 것.

여섯번째 단계는, 분기별 혹은 몇개월 단위로 1개 혹은 2개의 원리들을 스스로 실천해 보는 것.

일곱번째 단계는, 간증집을 출판하도록 하는 것.

여덟번째 단계는, 초대와 리트릿을 다시 시도하는 것.

아홉번째 단계는, 1단계-8단계를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

영혼의 돌봄이 자기 돌봄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한 분야라고 할 때,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요한다. 숙제를 내주고, 집에가서 혼자 하라는 식의 방식은

목양의 방식이 아니다. 목양은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양육하는 방식을 뜻한다. 영혼의 돌봄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의 돌봄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고유한 사안인 반면, 영혼의 돌봄을 스스로 실천하는 일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하기에, 영혼의 돌봄 목회를 시작하기 위한 첫번째 길은 바로 영혼의 돌봄이 무엇이며, 영혼의 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설교 시리즈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대중 강연을 통해 영혼의 돌봄을 소개하고 이러한 세계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말이다.

한편, 영혼의 돌봄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영혼의 돌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은 이들이 가져던 예상들 혹은 편견들을 깨뜨리고, 더욱 자신있게 영혼의 돌봄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할 것이다. 첫번째 단계가 ‘초대되어 듣는 단계’였다면, 두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가는 단계’라 할 것이다. 그러한 단계 속에서 영혼의 돌봄 목회의 정의, 근원,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자기 돌봄의 목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초대하거나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강연을 나누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영성 목회의 본질이 그렇하듯, 영혼의 돌봄 목회 또한 ‘배움보다 경험되어 지는 것’에 그 무게를 갖는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자기 돌봄의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혹은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그룹 모임을 갖고 몇가지 원리들을 한주씩 실천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경험들, 하나님의 돌봄의 사건들을 나누고,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훗날 자기 돌봄의 목회를 홀로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소그룹 모임과 더불어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단기 기도 리트릿이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3박 혹은 4박 동안 침묵과 홀로있기 가운데 신성한 친밀함을 갖는 것 말이다. 소그룹 모임이 영혼의 돌봄에 대한 단기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때, 리트릿은 영혼의 돌봄을 앞으로 삶의 습관적 패턴으로 살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감각을 일깨워준다 하겠다.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단계는 자기 돌봄의 목회를 위한 계획을 짜고, 특정한 원리들을 스스로 실천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영혼의 돌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자기를 돌보는 습관적인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일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자기를 돌보는 실천을 담대하게, 그러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점이 바로 이 단계들이다. 특별히 영혼의 돌봄은 한, 두가지 원리들을 계절별 혹은 일정한

개월에 따라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세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원리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몸을 위한 실천들 (예를 들면, 먼 거리를 정기적으로 홀로 걷는 것; 특정한 운동을 하는 것,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 두번째는 정신을 위한 실천들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주 웃는 것, 소셜미디어 시간을 줄이는 것; 타인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는 것), 세번째는 영적인 실천들 (사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or)를 받는 것; 주기 도문을 암송하는 것;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반복해서 외치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같은 것들 말이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실천 원리들은 다섯 가지 목록으로도 나눌수 있다: 몸, 정신, 감정, 관계, 그리고 영적 실천.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원리는 도구 즉 나 자신을 보다 넓게 하나님에게 열어가기 위한 통로이지, 목적도, 원천도 아니다.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인 대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과 그의 영이다. 그가 진정한 돌봄의 가능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원리들을 실천하기 보다는 그저 한두가지 원리들이 나에게 어떤 삶의 체질을 형성하고, 습관이 될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일곱번째 단계는, 간증을 해보도록 권면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다. 간증은 개인에게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선물이 된다. 또한 간증은 신성한 감각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유지되도록 이끌어 준다. 한편, 간증을 듣거나 읽는 이들에게 간증은 영혼의 돌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준다. 따라서 간증집을 출판하거나 어떤 특별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간증을 포함시키는 것은 각 영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돌봄 목회를 확장시키는데 있어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여덟번째 단계는, 초대와 리트릿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영혼의 돌봄 목회에 있어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번째에서 네번째 단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에서 영혼의 돌봄의 세계에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두번째와 세번째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세미나나 소그룹 모임에서의 경험이 불만족스러울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로 인해, 영혼의 돌봄 목회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한 결정을 내리길 주저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영혼의 돌봄에 대한 초대와 리트릿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마지막 단계는 1단계와 8단계를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일은 교회의 문화 (culture)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고유한 영성(spirituality)을 형성시킨다. 영혼의 돌봄 목회를 통해 자기 돌봄과 확장을 깊고 넓게 해나가는 일은 개인의 번영만을 시사하지 않는다. 이는 교회를 더욱 강건 만들고, “있어야 할 모습” 속에서 세상을 혹은 다른 존재들을 섬기고 관계를 맺도록 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1단계와 8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속한다.

마치는 말 (Conclusion)

지금까지 영혼의 돌봄 목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혼의 돌봄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다. 참된 선과 치유와 갱신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기록 속에 영혼의 돌봄 목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뉴미디어의 시대, 후기 기독교 ((Post-Christendom)의 흐름 속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자아, 더 나아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 돌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요구되는 실천에 속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혼의 돌봄 목회는 오늘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영성 목회 방식 중 하나이다.

특별히 자기 영혼을 잘 돌보는 일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혹은 사역을 앞에 두고서만 이뤄질 과제가 아니다. 자기 영혼의 돌봄이 일상 생활 가운데 온전히 이뤄질 때,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 목회 상담, 영적 지도, 영성 형성 프로그램 모두, 존재의 변형과 강건함, 특히 일상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뜻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함이라면, 영혼의 돌봄은 또다른 목회적 대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영혼이 새롭고 복된 것이 시작되기 위한 가장 급진적인 장소라고 할 때, 영혼의 돌봄은 이러한 급진성이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2)

그러나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혼의 돌봄이 마지막 수단이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다. 자기 돌봄의 영성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경우에, 세가지 오류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영혼의 돌봄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리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자기 돌봄이 이뤄질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나 교회의 지도에 대한 거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안주하려는 것이다.

즉 자기의 영혼을 돌본다고 할 때,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라는 신화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영혼의 돌봄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은 도구이지 원천이 아니다. 그것이 지도(map)일수는 있어도 목적지(destination)는 아닌 것을 분명히 하자. 한편, 영혼의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 중 신앙공동체나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의 치리와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영혼을 복되게 하기 보다 망치는 길이다. 영혼의 돌봄이 자기 돌봄 뿐만 아니라 확장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속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혼의 돌봄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만약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의 안내를 받지 않고 자기 돌봄에만 집중한다면,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자기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런 사람들 중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처럼 말이다.

세번째 오류는 자기 돌봄을 취하는 일들이 그것을 자기가 성장해야 할 마지막 단계로 여기는 경우와 관련된다. 영성 신학에서는 영적인 성장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곤 한다.

- 칭의 (Justification) => 성화 (Sanctification) => 영광 혹은 완전 (Glory or Perfection)
- 정화 (Purification) => 조명 (Illumination) => 일치 혹은 신성화 (Unity or Deficiation)

그러나 목회적 관점에서 성장 과정을 우리는 조금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럴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적 지지를 받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 **세속인 => 교회 멤버 => 소그룹 => 회심 (신앙인) => 영혼의 돌봄 (Soul Care) => 제자도 => 리더십 => 완전한 해방**

물론 각 사람의 영적 체질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만, 과정들을 함깨번에 경험할 순 있어도, 어떤 누구도 이러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어떤이의 경우에는 회심을 경험한 후에 소그룹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또 어떤이의 경우에는 회심이 곧 제자도를 살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돌봄이 그저 제자도나 참된 리더로 성장하는데 있어 전 단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반대로 영혼의 돌봄 목회를 통해 자기를 돌보는 일을 터득했다고 해서, 과거 그가 경험했던 단계를 부정하거나 떠나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내가 회심 했으니까 더이상 소그룹이 필요없다, 교회에 소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것들 말이다. 영혼의 돌봄이 온전히 이뤄지는 자들은 자기를 돌보는 습관적인 영성과 지혜를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더 온전히 뜨겁게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혼의 돌봄은 신앙 여정의 중간자 역할을 할 뿐이지, 마지막 대답이 아니다. 그것은 또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혹은 가능자일 뿐이다.